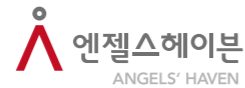


Angels' Haven 2016 Annual Report

엔젤스헤이븐 2016 연간 보고서





엔젤스헤이븐 2016 연간 보고서

목차

- 03 감사의 글
- 04 2016년 10대 뉴스
- 06 장애인복지
- 22 아동·청소년복지
- 32 지역복지
- 38 해외사업
- 46 재정보고
- 48 희망의 씨앗을 뿌린 사람들

감사의 글

이웃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엔젤스헤이븐은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 목적을 이루고 있는가? 애뉴얼리포트 만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사회복지법인 시설과 기관의 경우 자신들이 하는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웃을 도와야 하는 시설과 기관이 단순한 직장이 되면 서비스의 목적은 거기서 일하는 임직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향하게 됩니다.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시설과 기관들의 문제는 결국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질문하지 않고, 답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16년 애뉴얼리포트는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과연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를 엔젤스헤이븐의 여러 당사자(아동과 장애인, 노인 등), 직원, 후원자,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검토하고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엔젤스헤이븐의 1년 간의 다양한 활동을 양적인 지표로 표현하고, 글로써 정리하고, 사진으로 보고합니다. 이 보고서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엔젤스헤이븐이 운영하고 있는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과 기관의 서비스를 보고합니다. 둘째, 58년간 쌓아온 시설과 기관의 전문성에 기반을 두고 한국사회에 제안하고 있는 대안적 서비스(지원주택, 부모협동조합, 청소년리더 프로그램 등)를 보고합니다. 셋째, 시설운영의 전문적 경험과 인유애를 기반으로 해외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보고합니다.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의 자립과 행복한 삶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새로운 시도를 한 한 해였지만 여전히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의 입장이 아닌 이웃의 입장에서,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후원자님의 마음에서 더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2017년에도 엔젤스헤이븐 직원들은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엔젤스헤이븐 상임이사
조준호

2016 10대 뉴스



① 이제는 손모아장갑입니다

장애에 대한 불편한 시선과 편견을 해소하고자 2014년부터 진행한 손모아장갑 캠페인. 2016년에는 많은 분들의 참여와 도움으로 캠페인이 확산되었습니다. 영원아웃도어 노스페이스에서 'SONMOA GLOVE'(손모아장갑) 제품을 시중에 출시하였으며, 네이버 공감편딩을 통해 많은 분들이 손모아장갑 키트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국어사전 등재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도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가수 솔비 씨는 손모아장갑 캠페인송을 발표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같은 내용들은 SBS를 비롯해 많은 언론과 미디어에서 소개되었습니다.



② 장애인 지원주택 구제화

장애인의 지속가능한 주거모델에 대해 고민하는 엔젤스헤이븐은 연세대학교 주거복지단, 건축공방과 연계하여 '장애인 지원주택'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원주택이란 주택과 함께 서비스가 결합되어, 지역사회 장애인이 더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안적인 주거모델입니다. 최종 설계도를 완성하였으며, 현재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③ 발달장애인 가족의 고민을 나누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와 평생교육센터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장애자녀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를 원하는 장애인 가족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사회적협동조합 지원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장애인 돌봄-평생교육 협동조합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왜 협동조합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어 왔는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대안을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④ 리빙랩, 장애인도 살고 싶은 데서 살자!

'장애인 자립 서비스 지원 네트워크 만들기 - 살고 싶은 데서 살자!' 프로젝트가 서울시 리빙랩 사회혁신 프로젝트로 선정되었습니다. 리빙랩은 삶의 현장 곳곳을 실험실로 삼아 문제의 해법을 찾아보는 시도를 의미합니다. 자립생활을 하는 장애인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서비스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엔젤스헤이븐은 자립에 필요한 서비스 유형을 정리하고, 식사, 청소, 세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다양한 실험과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⑤ 희망의 바람 캠페인

2014년 은평재활원에 거주하던 장애인들은 시설의 노후화로 갑작스럽게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따뜻하고 행복한 집을 선물하고자 '희망의 바람'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극동방송에 사연이 소개되면서 1억 원이 넘는 후원금이 조성되었으며, 이스트소프트, CJ 등 여러 기업에서도 동참해 주셨습니다. 또한 같이가치를 통해서도 많은 개인후원자들이 마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⑥ 배움을 통해 꿈을 이루는 일, 타조장학회가 함께 합니다

엔젤스헤이븐의 초대 설립자 존 조셉 타이스 선교사와 조규환 회장의 정신을 계승하여 은평천사원 출신 인사 및 후원자들의 기금을 기반으로 조성된 타조장학회. 2016년 타조장학생 30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수여하였습니다. 당초 20명의 학생을 선발하려고 했지만 지원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자 10명의 장학생을 더 선발했습니다. 타조장학회는 재능과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교육기회와 여건을 제공하는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⑦ 청소년리더육성사업 진행

'청소년이 진정한 가치와 비전을 발견하고, 자기주도적인 삶을 디자인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리더육성사업을 펼쳤습니다. 엔젤스헤이븐 소속기관인 은평천사원, Ah'를 함께지역아동복지센터, 은평청소년수련관과 협력하여 진행하였으며, 총 48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발대식, 자기발견 프로그램, 캠프, 세미나 등에 참여하면서 진정한 리더의 의미와 요건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⑧ 우간다 지역개발협력사업 우수성과 소개

KOICA의 지원으로 2015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우간다 빈곤 아동교육 및 여성자립 역량강화' 사업이 현지 카벤데 지역의 지방정부가 발령하는 소식지에 지역개발협력사업의 성공적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특히 리더십 센터와 여성조합은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성공적 모델로 인정받아 지방정부의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고, 6개 초등학교 도서관의 경우 학교와 학부모들의 참여로 기금이 마련되는 등 지역사회 자립의 발판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⑨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지난 5월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포럼'을 진행하였습니다. 약 35개 기관에서 70여 명이 함께한 이번 포럼은 국내에서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원칙을 최초로 제안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또한 엔젤스헤이븐은 DiDAK 역량강화교육, 워크숍, 포럼의 결과로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브로슈어를 제작하고 국제개발협력을 수행하는 400여 개 기관에 배포하였습니다.



⑩ 지도도예학교 사회적기업 인증

장애인 예술가를 양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설립된 지도도예학교. 엔젤스헤이븐은 지도도예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도예학교에서는 소비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신제품을 개발하는 데 노력하였으며, 학교,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강좌를 열어 큰 호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아 보다 더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돌봄 협동조합 지원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인 발달장애인은 2016년 기준으로 1만 7천 명입니다. 이중 직업이 있거나, 주간보호센터, 평생교육센터 등을 이용하며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7천 명 정도 됩니다. 약 1만 명의 성인 발달장애인은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고, 장애인 가족이 책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의 고립, 퇴행, 가족의 우울감 증가 등의 사회문제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엔젤스헤이븐은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중심이 되어 장애인이 당면한 돌봄 및 평생교육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나무와열매사회적협동조합(성북구), 우아함사회적협동조합(가칭, 관악구), 다다름사회적협동조합(은평구) 등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였고, 이들 사회적협동조합 간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사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엔젤스헤이븐은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 돌봄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와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를 위한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는데 정책과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장애인가족 돌봄 지원

1,316

명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발달장애인법 제정 이후 장애인가족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중도장애, 장애부모 자녀 등을 위한 사업을 비롯해 발달장애인가족 휴식지원사업(보건복지부), 장애인가족 행복향상사업(은평구 참여예산)을 추가로 실시했습니다. 2017년에도 법인의 돌봄사업과 연계하여 개별 가족 욕구에 따른 가족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장애인가족행복향상사업

578

명

가족자조모임

224

명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

187

명

가족여가문화활동

112

명

돌봄가족휴가제

96

명

형제자매·장애부모자녀 지원

77

명

가족심리 지원

42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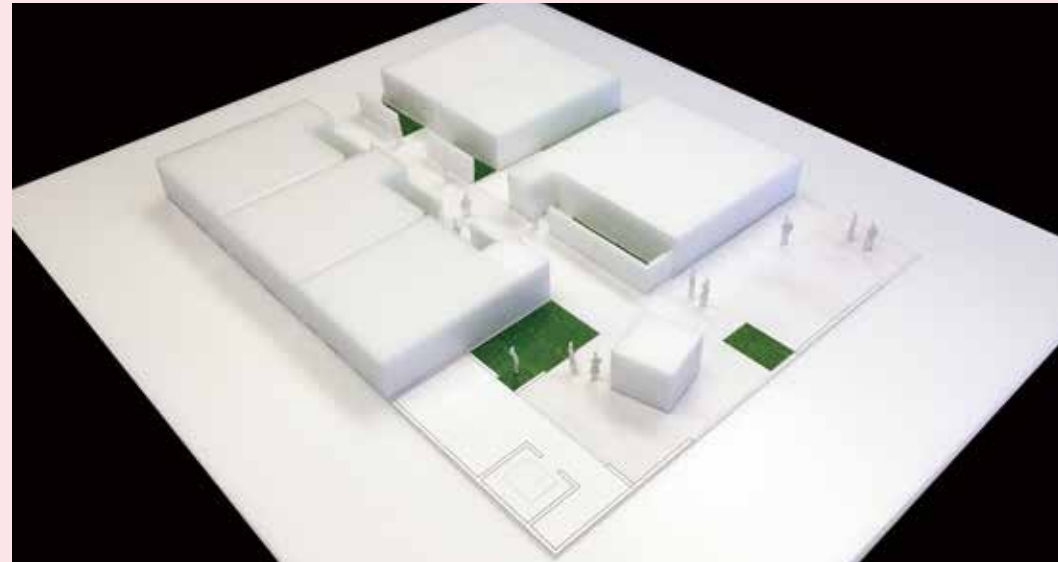


장애인 지원 주택 설계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중증장애인들이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 지역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적절한 주거 공간이 없을 뿐더러,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지원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엔젤스헤이븐이 추진하는 '장애인 지원주택'은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처럼 지역공동체의 지지를 받으며 살고 싶은 데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장애인가족들과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엔젤스헤이븐의 장애인 지원주택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커뮤니티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있어 고립과 소외감을 해소하고, 비장애인 역시 장애인과 함께 한다는 것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원주택의 공간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용공간, 장애인 신혼부부형, 장애인 가족형, 원룸형, 세어하우스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의 상황과 기호에 맞는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유형별로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들은 선택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자원을 연계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지원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주택에 서비스가 결합된다는 점입니다. 지원주택에는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 장애인이 지역네트워크에 연결되도록 돕습니다.

장애인도 살고 싶은 곳에서 살자!

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생활을 해야 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는 얼마나 환경이 갖춰져 있을까요? 자립생활하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집과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엔젤스헤이븐에서는 지역의 자원들을 연계해서 장애인들에게 식사, 세탁, 청소 등의 생활서비스를 지원하는 '장애인 자립지원 서비스 네트워크' 사업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에서는 생활서비스 뿐만 아니라 자립생활하는 장애인들이 화재 및 안전사고 등의 긴급상황에서 지역 내 코디네이터와 소방서 등에 신속하게 연락될 수 있도록 다양한 IOT(Internet of Things) 기기를 장애인들의 집에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역 공동체의 관심과 노력이 장애인들이 지역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양분이 되며, 장애인도 이를 통해 지역 내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2017년에도 엔젤스헤이븐은 더욱 많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처럼 살고 싶은 곳에서 지역공동체의 지지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립생활 장애인은 혼자 있는 심야시간에 위기가 발생하면 지원을 요청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텔레가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IOT 기기는 가스, 화재, 심박, 맥박 등 다양한 정보를 센서로 감지해 위급상황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시설장애인의 자립역량 강화

은평재활원(남성장애인거주시설)과 은평기쁨의집(여성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당사자의 욕구에 기반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평재활원은 건물의 노후화로 신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시설과는 다르게 장애인들의 개인공간을 보장하면서도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공간,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주인원

94명

교육 지원

53명

여가 문화활동 지원

579회

인권교육 및 권리옹호

944시간

직원

568시간

거주민(장애인)

376시간

재활 및 치료

8,941회

각종 치료(물리, 언어, 작업)

6,112회

외래진료

1,782회

원내진료

1,047회

직업

21명

은평보호작업장

9명

누아하우스 기타

4명

8명

자립지원서비스

7개소/34명

퇴소자 사후지원

7명/16회



재활치료 및 공공재활의료 사업

서울재활병원에서는 환자에게 최적의 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아, 청소년, 성인 각 연령대별로 특화된 재활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전문병원으로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공공재활의료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원 내 예산과 외부 자원 연계를 통해 저소득 환자들의 의료비를 지원했으며, 가족이 행복해야 환자의 건강한 가정복귀가 가능하다는 신념 하에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하여 방문진료, 건강교육 등도 진행했습니다.

이용환자 연 입원환자 30,396명 / 연 외래환자 48,711명 / 낮 병동환자 25,429명

104,536 명

공익진료(의료비 지원)

1,694,987,086 원

보조기기 지원 환자가족 행복사업

613 건 6,170 건

지역사회사업 사회복귀 지원 사업

3,092 건 1,846 건

국제협력사업 해외 세미나 개최 및 의료봉사(카자흐스탄) 2건
해외 환자 의료비 지원 7,186,370원
재활실무자 연수사업 3명(이집트 2명, 중국 1명)



소아청소년 환자, 보호자를 위한 나들이 '소통'

4월 21일 장애인의 날 주간을 맞아 소아청소년 환자, 보호자들과 함께 나들이 '소통'을 위해 에버랜드를 찾았습니다. Sharing봄 나들이 '소통'은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이 치료 외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환자뿐만 아니라 간병으로 지친 보호자들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자 계획된 소아, 청소년 가족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환자 30명, 보호자 50명, 직원 30명은 에버랜드의 놀이기구와 동물원을 누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지희(가명) 양의 보호자는 "가족끼리 놀이공원에 오면 부모는 아이들을 살피느라 즐겁게 놀지 못하는데, 병원 치료사 선생님들께서 아이들과 함께 놀아줘서 여유롭게 놀 수 있어서 좋았다."며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나들이 소감을 전했습니다.

치료바우처 사업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과 서부재활체육센터(서부아동발달지원센터)에서는 지역사회 장애인을 대상으로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용자가 희망하는 치료서비스를 파악하고 지원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했습니다.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13,647 명	5,602 명	4,570 명
인지치료	놀이치료	심리운동
4,137 명	2,751 명	576 명

교육서비스

은평대영학교에서는 특색 교육활동으로 학교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3개년 프로그램과 은평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체험학습과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통해 장애학생들의 자립을 도모했습니다. 자율적이며 배려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학생을 양성하고자 스카우트 활동을 실시하였고,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2017년에는 특색교육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행복한 책 읽기'라는 주제로 독서 교육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적용에 따라 초등학교 1, 2학년은 국어, 수학, 즐거운 생활, 슬기로운 생활, 바른 생활,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운영됩니다. 변화하는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교원학습공동체, 교과교육연구회 등 다양한 연구 활동을 진행합니다.

학생 수

231 명

학교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

47 %

학생의 수업참여 증가

94 %

학생의 문제행동 감소

80 %

교사의 만족도

현장체험학습

58 회

각종 행사

26 회

스카우트 활동

6 회

은평 체력증진 프로그램

2 편

은평체조 제작

8 종목

아침운동



학생체력검사
왕복오래달리기(회)

구분		1학기(남)	2학기(남)	1학기(여)	2학기(여)
초등학생	1, 2, 3학년	18.7	21.18	14.1	15.4
	4, 5, 6학년	23.17	32.23	18.7	23.85
중학생	1, 2, 3학년	9.1	15.3	16.2	25.0
고등학생	1, 2, 3학년	20.4	25.7	11.1	13.1

학생체력검사
제자리멀리뛰기(cm)

구분		1학기(남)	2학기(남)	1학기(여)	2학기(여)
초등학생	1, 2, 3학년	42.35	43.52	43.7	46.32
	4, 5, 6학년	48.38	69.5	57.5	59.5
중학생	1, 2, 3학년	58.4	75.1	65.4	76.7
고등학생	1, 2, 3학년	91.8	105.4	65.1	69.6

주간보호 서비스

주간보호센터는 '정겨우리'라는 이름에 맞게 지역에서 정겹게, 어우러져 사는 우리를 바라며 이용자와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이용인원 18명에 맞춰 '개별화 계획'을 좀 더 실현하는 해였습니다. 2017년에는 개별화 계획에 따른 1:1 취미활동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법안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돌봄협동조합지원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장애자녀를 둔 부모와 가족이 주축이 되어 운영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어려움과 협력방안을 나눴습니다. 장애인협동조합 부모님들이 정겨우리에 방문하여 돌봄 공간을 만들 때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도 확인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도 얻었습니다.

문화활동

문화거점을 설정하여 장애 당사자가 사는 곳 가까운 곳에서 문화권을 누리고, 관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공동체인 '틈사이로'가 안정화 되었으며, 장애 당사자의 예술활동이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2017년에도 이러한 플랫폼을 조성하며 사례를 축적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양취미 활동

4,077 명

발달장애인창작예술 '틈사이로'

1,244 명

평생교육(자주생활)

979 명

지역연계 '창작물 전시회'

12 건

활동보조 서비스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활동보조인을 양성, 파견하였습니다. 현장 방문교육, 활동보조인 슈퍼비전을 강화하였습니다. 2017년에도 활동보조인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활동보조인 교육 이수자

858 명

활동보조인

307 명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

314 명

서비스제공 횟수

59,312 회



Interview

발달장애가 있는 성인남성 이용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칭찬'을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어쩔 거수 이름도 다 외우고, 노래도 댄스도 이렇게 잘할 수 있지?"라고 칭찬을 해주면, 어느새 얼굴엔 미소가 가득해집니다. 또 무조건 좋다고 강요하지 않고 의사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복지관 선생님 보러 갈까? 마트에 장난감 구경 갈까?"라고 물어보고 본인이 선택하도록 해서 데려가곤 했습니다. 어떤 목적이 없으면 걷는 운동조차 하려 하지 않으니 이런 방법으로라도 걷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힘든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은 몸이 안 좋아서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니까 '하나님, 우리 선생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주는데, 그 마음이 정말로 기뻐했습니다. 이처럼 활동보조라는 직업이 때론 가슴 뭉클한 감동과 웃음이 있고, 때론 마음이 상할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용자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살피준다면 그들을 돕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활동보조인 김미자 님**

인권활동

인권활동가의 지속적인 교육, 토론 가능한 책모임 구성으로 개인이 가진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고 역할에 관한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인권활동가 양성 뿐만 아니라 인권동화 읽



기, 인권영화제를 진행하며 지역주민도 쉽게 인권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사자가 자기결정권을 행하고 당사자 중심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력자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은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 당사자 주체성을 확대하여 인권사업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인권교육

91 회

활동가 양성

176 명

Interview

2008년, 교통사고로 하반신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퇴원 후 사회생활은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길에서 넘어져서 골절되기도 하고, 화상도 입고 다치는 일이 많았습니다. 사회에서 부딪히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자'라는 이야기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나의 상태'가 변해 휠체어를 탔을 뿐인데 말이에요. 그러던 중 병원에서 먼저 퇴원한 동생이 인권공부를 권유했습니다. 인권활동가 교육을 받으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것과 휠체어를 밀어주는 건 다릅니다. 대상화가 되는 건 당사자만 아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전히 장애 인권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함께 활동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 삶 속에서 늘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장애인 선배들을 만나 힘을 얻습니다. 장애인이 인권과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 다른 사람들은 '예민하다' '까칠하다' '주는 것에 감사하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온정주의가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같은 행동도 비장애인이 하면 괜찮고, 장애인이 하면 문제입니다. 같은 관계에 있고 싶은 마음, 기본적인 것에 대한 시선을 알려주고 싶어 인권 활동가를 합니다. 인권에 대한 시선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권은 어디든 속해 있습니다. 인권활동이 확장되면 모든 사람에게 유익할 겁니다. **인권활동가 오성경 님**

일자리 발굴 및 연계

엔젤스헤이븐 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두어 장애인들의 근로능력을 향상했으며, 취업처를 발굴하여 지역사회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흥미와 능력, 욕구가 발현될 수 있도록 개별맞춤 형태의 직업적응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였습니다.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서비스직	사무직	제조·생산직
95 명 (취업자)	49명	25명	21명
	52%	26%	22%

은평보호작업장	실습생 6명 중 2명 신규 채용 매출액 98,862천원
30 명 (장애인 근로자)	

서부재활체육센터	장애인 바리스타 교육 972명 / 엔젤카페 바리스타 2명 / 재활체육 전문탁구교실 1명

누아하우스	매출액 806,748천원 평균 임금 522,000원
54 명 (장애인 근로자)	

※ 아인미

I in 美 브랜드 천연화장품 스킨케어세트를 리뉴얼하여 출시하였습니다. 울데미오이스춰 로션, 포어케어스킨, 딥리프팅에센스, 뉴트리셔스크림 등 4종으로 구성하였으며, 품질을 향상시키고 디자인에도 변화를 주었습니다. 매출 증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Interview

2013년 처음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 오게 되었습니다. 직업지원팀의 소개로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2년, 역촌노인복지관에서 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청소가 주 업무입니다. 그 외에 운전을 할 줄 아니 운전, 반찬지원도 합니다. 반찬하면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건강도 묻고 이야기도 나눕니다. 처음에 복지관에서 청소할 때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알아서 척척 해내니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좋아해 줍니다. 운전이 주 업무였지만 워낙에 깔끔한 성격이라서 이 업무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장애가 있지만 '내가 장애인인데 못하겠지'라고 두렵게 생각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지 않고 일하다 보니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장애인들이 취업하는 것! 사회적으로 제약도 많고 어려운 일이지만 삶에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장애인들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말 한마디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소재환 님



꿈을 빛는 사람들, 지노도예학교

엔젤스헤이븐이 지원하는 ㈜지노도예학교는 장애인 예술가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2012년에 설립한 사회적기업입니다.

2016년에는 기존의 교육사업, 도자제품 판매와 함께 도예공방을 신규로 오픈하였습니다. 성인반과 유·초등반, 직장인반(야간) 등 총 3개의 클래스를 운영했으며, 58명(성인 34명, 아동 24명)의 회원이 신규 등록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내 많은 학교, 기업, 단체들이 지노도예학교 도예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 비장애인이 예술을 매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으로 지정, 장애인 예술가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사업(도예체험)

40개
참여학교(단체)

7,000명
체험인원 (2015년 대비 466% 증가)

도자제품 판매

500세트
유아식기 판매 (2015년 대비 285% 증가)





시설아동의 자립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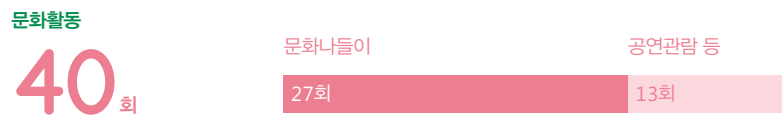
은평천사원에서는 부모의 사망, 실직, 학대 등으로 부모와 함께 생활하지 못하는 아동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교육 지원, 상담 및 치료, 문화활동, 자립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아동의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위기청소년 휴게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양육 · 돌봄 2016-2017 키 및 체중 변화

전체 아동	유기산 프로그램(킴온앤커뎀) 실시아동	
미취학	키 7.23cm / 체중 1.77kg 증가	미취학(4명) 키 6.98cm / 체중 3.85kg 증가
초등학생	키 4.47cm / 체중 3.10kg 증가	초등학생(3명) 키 7.90cm / 체중 5.00kg 증가
중학생	키 4.44cm / 체중 5.45kg 증가	중학생(3명) 키 7.07cm / 체중 6.53kg 증가
고등학생	키 0.46cm / 체중 1.67kg 증가	-

- ※ 유기산 프로그램 : 소변검사로 영양상태 확인 후, 영양제 및 약 처방
- ※ 일반아동보다 유기산 프로그램(킴온앤커뎀)에 참여한 아동들의 성장발달이 좋았으며, 특히 신체성장이 활발한 시기인 초등학생, 중학생 시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Interview

처음 천사원에 방문했을 땐 2년 동안 이렇게 만남의 끈이 이어질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쉽게 친해질까 이런 저런 생각을 많이 해봤지만 자주 보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낯선 어른들의 친절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 같았어요. 더 노력하고 진심어린 마음으로 다가가자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을 익히고 이름을 메모하고 아이가 거부하는 몸짓을 보여도 당황하지 않는 척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고 마침내 아이들이 한 명 두 명 웃는 얼굴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여름 하늘공원에 같이 갔던 소풍을 계기로 아이들과 부쩍 가까워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너희들을 만난 건 너무너무 큰 행운이었고 축복이었어. 매일 만날 때마다 조금씩 커가는 천사들을 볼 때 참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아저씨는 너무 흐뭇하단다. 건강하고 밝게 자라 초등학생, 중학생으로 커나가는 모습 꼭 지켜볼게. 사랑한다 우리 천사들." 천사랑(면동초 동창회 봉사단) 윤용규 님

지역사회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

저소득가정 아동을 보호, 교육하고자 Ah'들함께지역아동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5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합니다.



청소년 활동 지원

청소년의 다양한 심리문제와 생활상의 어려움에 대해 상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실을 통해 개인상담, 포레상담, 집단상담, 부모교육, 심리검사를 실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또한 위기청소년에게 상담, 긴급구조, 연계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CYS-NET)를 제공하고, 위기극복을 위해 지역사회 시민들과 기관·단체가 서로 주체가 되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위기청소년의 가정 복귀 및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동아리 주제를 진로활동을 중심으로 운영해 자기주도적인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진로교육과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융합한 진로캠프를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탐색하며 지도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 및 활동 지원

105,671 명

청소년 상담치료 및 정서지원

56,782 명

청소년 진로 및 직업체험

23,131 명

Interview

첫 설렌 만남을 지나 벌써 '드림아지트 청소년기자단' 활동의 마침표를 찍을 때가 왔습니다. 동아리의 대표로서 감회가 남다른 한 해였습니다. 특성화 고등학생에게 3학년이란 글 '한 자'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전 이력서, 자기소개서 보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만난 '드림아지트 청소년기자단'은 제게 '열정'이라는 동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시작 전에는 '학교생활, 취업준비, 청소년 기자단을 병행할 수 있을까?' 불안했습니다. 맘이 졸졸 흐르던 여름도, 해가 짧고 쌀쌀했던 겨울도, 자격증 시험과 면접으로 바쁠 때도 기자단 정기모임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기자단 친구들과의 만남, 계획과 활동에 관한 논의, 언제나 반갑게 맞이해주시던 선생님들 덕분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피곤함보다 뿌듯함과 충만한 마음을 채워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 번의 취재 실수를 통해 가슴 찡한 무언가도 느껴보았고, 저 스스로의 진로활동에 도움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자단 활동을 하는 동안 바쁘고 힘든 시기였지만,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세계를 조금이라도 볼 기회, 마음 따뜻한 사람들과 근황을 묻고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얻었습니다. 2016년 청소년기자단 활동은 마무리되었지만, 가슴 속 따뜻한 느낌과 추억들은 영원히 남겨두겠습니다.

드림아지트 청소년기자단 동아리 대표 신수연



민원혜 / 타조장학사업 / 2016년

타조장학사업

타조장학회는 엔젤스헤이븐의 초대 설립자 존 조셉 타이스 선교사와 조규환 회장의 정신을 계승하여 은평천사원 출신 인사 및 후원자들의 기금을 기반으로 2013년 설립 되었습니다. 재능과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와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7년에도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에게 힘이 되는 디딤들의 역할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국내지원

장학생 지원 **연령** 중학생 7명, 고등학생 16명, 대학생 7명
소득수준 기초생활수급가정 21명, 차상위계층 7명, 저소득가정 2명

30명

장학금 **장학생 성적 향상**
34,700,000 원 **83**%

장학금 사용처

인터넷 강의, 학원비	등록금	도서 및 교재비	기타
11명	8명	6명	5명
37%	27%	20%	16%

진학

고등학교 진학	취업 및 대학 입학
4 명 자율형사립고등학교 2명, 특성화고등학교 1명, 일반고등학교 1명	6 명 취업 4명, 대학 입학 2명

Interview

장학생으로 선정된 뒤로 용기를 얻었습니다. '장학생에 선정이 되었다, 선택을 받았다'라는 사실은 자존감을 높여주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돈을 지원해 주신 것 뿐만 아니라 용기가 부족했던 저에게 누군가 할 수 있다고 격려를 해 주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열심히 공부하라고 주신 장학금이라 최대한 용돈으로 안 쓰려고 노력하고 학업이나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덕분에 한 학기 동안 책, 필기구, 문구류도 사고, 듣고 싶은 강의도 마음껏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매일 학교와 알바를 다녀서 교통비가 부담되었는데 장학금 덕분에 교통비에 대한 걱정을 덜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집이 정말 어려워서 엄마께 용돈도 안 받고 생활하느라 너무 빠듯했는데 이번 학기에는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대학교 1학년 정문희



해외지원

장학생 지원
41명

성별 남학생 28명, 여학생 13명
연령 S1(중1) 6명, S2(중2) 12명, S3(중3) 12명, S4(고1) 5명, S6(고3) 2명, 초등학생 4명

장학금

10,800,000원

장학금 사용처

학비	멘토링 프로그램비	기숙사비	기타
16명	11명	8명	6명
40%	26%	19%	15%

진학

중등학교 졸업	대학 진학
2 명	1 명



Interview

2015년부터 2년 동안 장학금을 지원받았어요. 이전에는 공부하고 싶어도, 집안 형편상 마음 편히 할 수 없었는데요. 장학금 덕분에 하고 싶은 공부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우간다에서는 농업이 가장 중요한 산업이에요. 농업전문가가 되어 지역경제를 살리고 나라에 보탬이 되고 싶어요. 특히 축산 분야를 공부하고 싶어요. 대학교 진학해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Isingoma Robert (이싱고마 로버트)

청소년 리더육성사업

청소년리더육성사업은 '청소년이 진정한 가치와 비전을 발견하고, 자기주도적인 삶을 디자인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2015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6년 본격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아이들은 진정한 리더가 되는 방법에 대한 고민과 자신의 꿈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참여기관	대상 및 인원		
	2015년 1기(1단계)	2016년 1기(2단계) 2기(1단계)	
숲속거인학교	19명(초 4~6)	-	-
은평천사원	8명(중 1~2)	6명(중 2~3)	10명(고 1~2)
Ah'눔함께지역아동복지센터	7명(초 4~6)	4명(초 5~6)	4명(초 6)
은평청소년수련관	10명(초 5)	9명(초 6)	15명(초 4~5)
소계	44명	19명	29명
합계	44명	48명	

1기 참여자의 변화

구분	학습환경 조성		집중력		노력		시간관리		반복학습	
	편안한 마음	삶의 가치, 목표	감정 조절력	집중력	인내심	학습 계획 실천	시간 계획 수립	시간 계획 준수	암기력	복습 습관
사전	8	7	7	7	7	5	5	5	6	4
사후	9	8	8	8	8	7	7	7	8	7

2015년에 이어 2016년 참가한 아동을 대상으로 10개 항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항목별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시간계획 수립'과 '시간계획 준수', '학습계획 실천', '복습 습관'의 변화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Interview

여태까지 리더십 교육을 하면서 즐거운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다. 하지만 리더십 교육을 하면서 나의 모습이 한층 더 발전되었던 건 사실이다. 리더십 교육은 기대보다 더 좋았던 시간이었다. 친구들과 사이도 더 좋아졌다. 리더십 교육을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2학기 기말고사 때 시험 성적이 올라서 선생님께 너무 감사하다. 이제 끝나서 아쉽지만 지금보다 더 좋은 시간이 있기에 아쉬움을 마음속에 담아둬야 할 것 같다. 앞으로 더 나를 발전시키고 진정한 리더가 되고 싶다. 난 세계 최고의 리더가 되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함께 수업해 준 김나영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싶다. 참가자 박현빈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모자가족자활센터 흰돌회는 가정경제의 어려움, 가정폭력, 이혼 등으로 노숙 직전에 처했거나 실제 노숙을 하고 있는 모자가정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생활시설입니다. 또한 모자가정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자가정 자립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소 시 정착 지원, 상담 및 사례관리, 저축관리, 일자리 연계, 한부모 양육코칭, 지역사회 자원 연계, 아동 결연후원금 연계, 장학금 지원 연계, 입소아동 공부방 운영, 아동 현장체험활동, 매입임대주택 운영 등 분야별 사업을 통해 모자가정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과 자립을 도모합니다.

모자가정 자립지원사업의 중심에는 모자가정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독립된 주거 공간을 제공, 건강하고 행복한 모자가정으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매입임대주택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16년에는 19가정(총 52명)이 매입임대주택에서 생활하며 초기정착 지원, 저축관리, 외부자원 연계, 주택관리, 일자리관리, 1:1 결연후원 연계, 상담 및 사례관리 등을 통해 자립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자립지원을 통해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자립에 성공한 가정이 3가정(총 7명)이 있습니다.

입소자



소득 및 저축관리 프로그램



지역사회 연계 지원



아동 지원



1:1 결연후원금



공부방 학습 지원



현장체험학습 지원

매입임대주택사업



입주자 (어머니 16명, 자녀 29명)



취업자



월평균 급여액



월평균 저축액



Interview

둘째 아이가 돌도 안 되었을 때 흰돌회에 왔어요. 어린 두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살까 막막했는데 직원 분의 권유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어요. 얼마 전 지역청소년센터에서 실습도 마쳤고요. 아르바이트 하라, 아이들 재우고 리포트 쓰라 힘들고 정신없지만 아이들 얼굴 보면서 힘내고 있어요. 기회가 된다면, 아동청소년 복지나 여성복지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필요한 부분도 제가 먼저 채워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2년 간 흰돌회에서 생활하면서 감사한 일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과 같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어 감사하고요. 무엇보다 두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주어 감사해요.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많겠지만,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매입임대주택 거주 이미나 님

노인복지

건강검진, 물리치료, 한방요법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관리하였고, 저소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밑반찬 배달 및 급식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독거·저소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자립강화교육(어르신아카데미 '자립강화메시지'「배움톡TALK」)을 진행하였으며,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케어를 제공하고 가족들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취미예능교육, 건강교육, 평생교육, 정보화교육 등 총 39개의 과목을 운영하였으며, 사회교육 참여를 통하여 지적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 정서적 안정도모 등 건강하고 의미 있는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학습의 장을 제공하였습니다.

만 65세 이상 은평구에 거주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공익활동형)을 진행했습니다. 2016년 5개 사업(노노케어, 아동보육급식도우미, 재활체육 보조교사, 프로실버강사단, 지하철안전도우미)으로 확대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7년에는 '실버복지사(공익형)' 사업을 추가적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건강 지원

45,662명

평생교육·취미여가 지원

32,744명

사회참여

15,624명

주·야간보호

4,616명

독거노인 정서 지원

1,470명



※ 실버복지사(공익형) 은평구 내 동주민센터에서 업무보조 및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Interview



복지관에서 강의를 시작한 지도 어느덧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저는 초등학교 방과후 교사로 활동을 하다가, 나이 제한으로 교사 활동을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 활동처 여러 곳을 찾아보던 중 갈현노인복지관과 연결이 되어 지금까지 어르신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글씨를 전혀 몰라 지하철 환승이나 버스탑승, 은행업무 등 불편하고 눈치 보이는 것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글씨를 읽고 자연스럽게 버스도 탑승하고 혼자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면 너무나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계속해서 어르신들에게 제게 있는 것들을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한글교실(초급) 강사(봉사자) 주명희님



엔젤스헤이븐은 2008년부터 우간다 카토케 지역과 카바롤레 지역에서 아동, 여성 교육과 소득증대사업, 지역역량 강화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자립의 발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동 교육

카바롤레의 하키발레 지역은 초등학교 졸업생 수가 우간다 전체 초등학교 평균의 1/4에 불과한 교육 여건이 우간다 내에서도 매우 열악한 곳입니다. 엔젤스헤이븐은 아동들의 학업 의욕 및 학습 능력을 높이고, 중·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리더로 성장시키고자 초등학교 도서관 지원과 리더십 프로그램 교육, 중등 진학 시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도서관 지원

6 곳

도서관 이용 학생 수

76,051 명

2015년 대비 30% 증가

교과서 및 도서 지원

6,692 권

학교 및 학부모 참여 자립기금

6,364,848 UGX

2015년 3,705,201 UGX

장학금

83 명

리더 양성

60 명

우간다 대학과 공동 개발한 리더십 프로그램, 지방 정부에 등록



Interview

학교에 도서관이 생긴 이후, 동화책을 읽을 수 있게 되어 정말 좋아요. 호기심에 도서관에 들어가 기 시작해서 이전 도서관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마다 상을 받아요. 도서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더 많은 책을 읽어야 하고, 더 많은 독후감을 제출해야 해요. 그래서 도서관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 평소보다 훨씬 더 자주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요. 'Reading Competition' 당일에는 시낭송, 책 읽기와 작문 대회, 단어 스펠링 맞추기 게임, 연극을 해요. 전에는 이런 활동을 해 본 적이 없어서 참여할 때마다 신이 나요. 바라는 점이 있다면 더 많은 동화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도서관에 있는 동화책은 벌써 거의 다 읽었어요. 재미있는 책들을 읽을 수 있다면, 프로그램에 더 열심히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Benjamin Tusiime(벤자민 투무시메) 키부라라 초등학교, 만 11세(P5-초등학교 5학년)



여성 교육

우간다 서부 카바롤레 지역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여성들이 어린 시절 노동이나 가사 일, 조혼 등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어 문맹률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사회참여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며 저임금의 불안정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엔젤스헤이븐은 여성들의 문해 능력 향상과 전문 기술 양성을 통해 여성들의 권리 향상을 돕고 있습니다.

문해교실

389 명

참가자

8 곳

운영

93 %

합격률

재봉교육

945 명

이수자

재봉기본교육

667명

니트교육

27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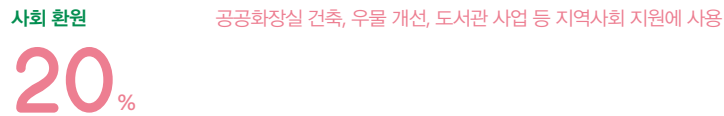
지역 역량 강화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엔젤스헤이븐은 지역 공동체 의식을 높이며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술과 이를 실행할 조합의 운영 방안까지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아동 권리 교육을 통해 지역 초등학생의 중도 탈락률이 감소되었으며, 초등학교 재입학률도 증가했습니다.



카웹 여성조합 운영

카바롤레 지역에서 활동하는 KAWEP(카웹) 여성조합은 현재 470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소득 증대를 위해 교복, 니트, 수공예, 인형, 파우치 제작 및 가축 공동 사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Interview

4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엔젤스헤이븐에서 진행하는 재봉 교육에 참가한 후, 재봉 교육장에 나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카웹에서 얻은 수익금은 아이들 교육비에 사용됩니다. 가게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재봉 교육장에 자주 나오고 싶지만, 집에서 교육장까지 걸어서 1시간이나 걸립니다. 또 농사도 지어야 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재봉기술을 잘 배워서 강사로 일하고 싶고, 돈도 더 많이 벌고 싶습니다. Kyalikunda Yuelita(유엘리타)

미션이 조합 운영

미션이 지역은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주민이 약 95%가 되는 열악한 마을입니다. 미션이 마을 주민의 소득과 지역개발의지 향상을 위해 지역 조합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간다 미션이 지역에서는 100명의 조합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마을의 자립을 위해 농작물 재배와 축산, 양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인프라 지원

카바롤레와 첸조조 지역의 마을 우물과 화장실을 건축했고, 부역을 개량하는 사업도 진행했습니다. 모든 지역 인프라 사업은 지역주민이 직접 기획한 사업을 토대로 지역 조합의 심사를 거쳐 선정했습니다.



기초생활 지원 사업

미션이 홈오브더챔피언즈 고아원 아이들의 열악한 식생활을 향상하도록 지원금을 늘리고, 아동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침대, 식기, 모기장 및 말라리아, 황열, 감기, 해열제 등의 의약품 400팩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급식비 지원을 확대하여 좀 더 영양가 있는 급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고아원아동 급식 지원

53명

상비약 지원

400팩

인도적 지원사업

엔젤스헤이븐은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전 세계 어디라도 달려가고자 합니다. 의료지원이 필요한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우간다 아동들의 진단, 재활 치료, 보장 구, 수술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몽골에 구급차를 보냈고,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네팔의 장애인들을 도왔습니다.

의료 지원

5명

네팔 장애인 지원

500만 원

몽골, 구급차 지원

몽골의 척추어위축병원에 6천만 원 상당의 구급차 지원 (서울재활병원 제공)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

엔젤스헤이븐은 지구촌 시민들의 약속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그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Leave no one behind)는 정신을 바탕으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16년에는 개발협력 장애분과(DiDAK)의 대표 실행 단체로서 장애를 국제개발협력 과정에 포함시키고, 장애인 당사자와 함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교육, 워크숍, 포럼을 개최하여 총 50여 개 기관에서 2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DiDAK Disability Inclusive Development Alliance Korea 개발협력연대-장애분과 대표단체 활동

역량강화교육, 워크숍, 포럼 참가자

200명

태국, 베트남 특수교육 전문가 파견

10명

태국, 베트남 특수교육 전문가 초청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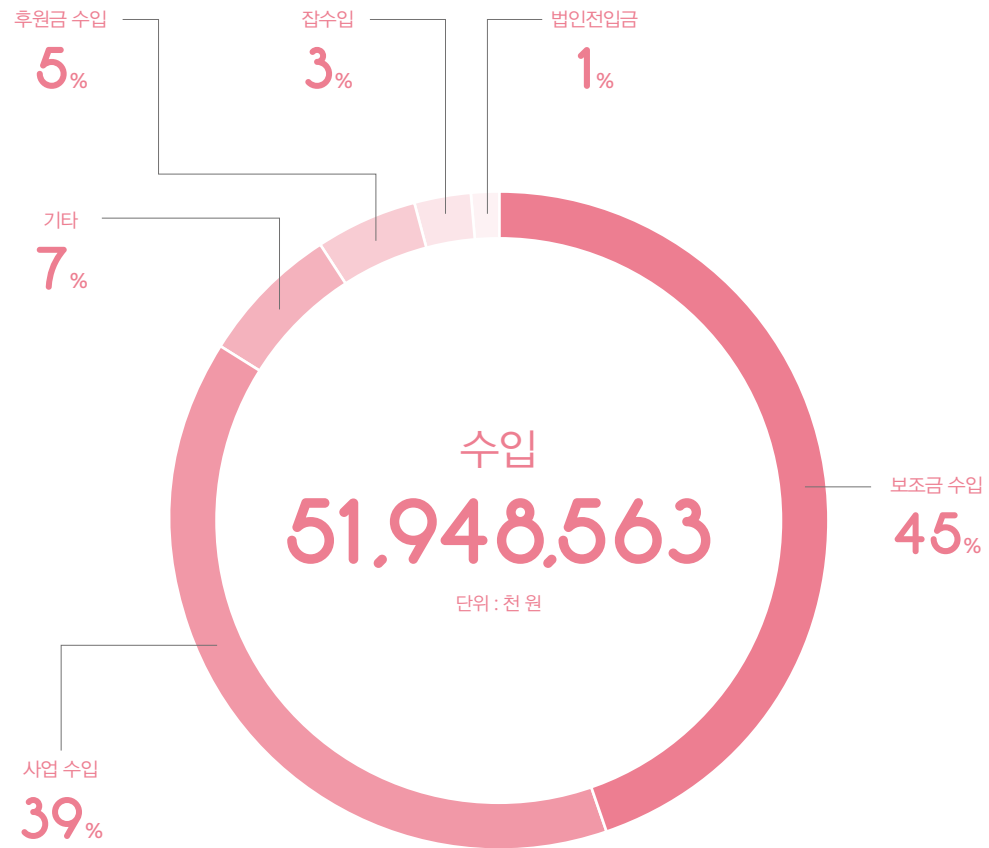
13명



Int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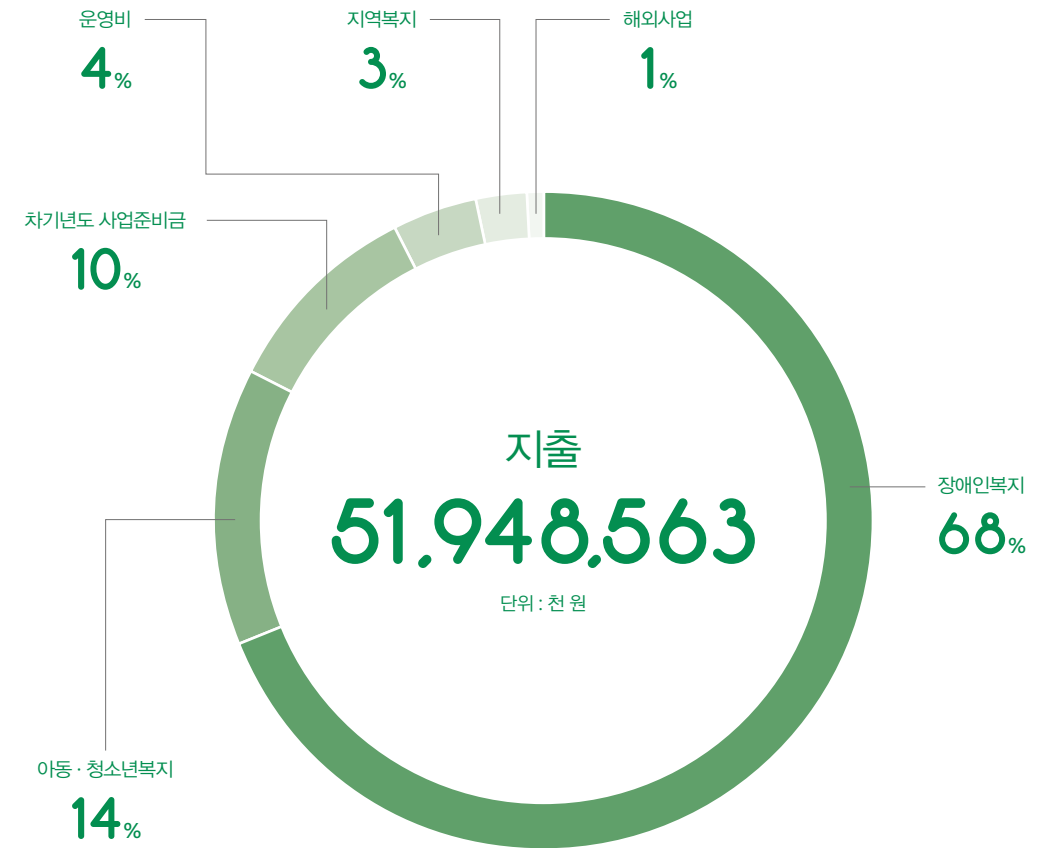
특수교육 전문가 파견으로 베트남에 연수를 다녀온 이미선입니다. 작년에도 특수교육 연수사업으로 베트남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제가 처음에 왔었다는 걸 기억해주면서 많이 반겨 주었습니다.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서, 사실 그렇게까지 저를 기억해 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와서 아는 척해주고 이야기를 해줘서 참 뜻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내가 기억된다는 게, 의미 있다는 게 참 좋았습니다. 현지 선생님들을 처음 만났을 때는 한국 선생님들이 교육하는 방법에 대해 의심하고 경계하는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선생님들에게 우리의 교육 방식을 당당히 보여주는 게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문에서는 준비해 갔던 교재나 교구들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더 많이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발견했습니다. 이에 더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연수를 다녀오고 난 뒤에 현지 선생님들과 페이스북 친구를 맺었습니다. 이름과 계시글이 모두 베트남어라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선생님들의 생각을 서로 공유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관계를 이어나가면 의미 있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인천 인혜학교 이미선 교사

재정보고



보조금 수입	23,156,061	후원금 수입	2,696,104
사업 수입	20,375,874	잡수입	1,407,832
기타	3,580,374	법인전입금	732,318

2016년에도 따뜻한 사랑을
보내주신 후원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직하고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35,604,436	운영비	2,289,583
아동·청소년복지	7,147,129	지역복지	1,396,491
차기년도 사업준비금	5,156,295	해외사업	354,629

희망의 씨앗을 뿌린 사람들



정기후원자

5,680 명



총 후원금

2,696,104 천 원

2016년 엔젤스헤이븐 총 후원금은 2,696,104천 원입니다. 법인 후원금은 1,808,401천 원, 소속기관 후원금은 887,703천 원입니다.



● 저는 문구류 생산 유통 일을 합니다. 제가 만든 물품의 일부를 엔젤스헤이븐에 기부하는데요. 후원물품을 받는 아이들이 행복해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에게도 기부하는 날이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기부할 물건을 준비하는 날도 행복하고요, 덕분에 평범한 일상도 행복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하는 사람이다 보니 누군가를 만나 대화를 하는 건 항상 긴장하게 되는데요. 후원하기 위해 누군가를 만날 때는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편안해진다니까요. **인터마루 김기운 대표**



● 타조장학금을 받고, 제가 지금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고민하게 되었어요. 원래는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후원하려고 했는데, 지금도 조금 더 아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나중에 멋진 선배님들처럼 타조장학회 일원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도움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김수빈 후원자(타조장학생)**



● 고객들과 함께 레고를 기부하고 있어요. 제 아이가 레고를 가지고 놀면서 창의성을 배우는 걸 느꼈는데요. 여전히 레고 못 가지고 노는 애들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창고에서 먼지가 쌓이도록 방치하지 말고, 서로 나눠 쓰면 더 많은 아이들이 레고를 즐길 수 있겠더라고요. 보통 기부는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재능도 있고, 가진 게 있어도요.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요. 자기가 가진 것만으로도 필요한 사람에게 줄 수 있더라고요. **레고라운드 이정은 실장**



● 제가 너무 어렵게 살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돈 많이 벌어서 쓰고 싶은데 쓰고, 하고 싶은 거 하자'고 다짐했죠. 하지만 오롯이 나를 위해 쓰는 건 큰 의미가 없잖아요. 기회가 된다면, 지역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러다 엔젤스헤이븐을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가지헤어비스 수색이마트점 김주영 원장**



● 지난해 아프리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 중에 제가 후원하는 우간다의 아이들을 직접 만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실행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난 아이의 이름은 '먼데이 노아'였습니다. 미션이 고아원에서 생활하던 노아는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아이를 보며 뿌듯함이 느껴졌습니다. 제 덕분에 누군가가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도 생겼습니다. **장태희 후원자**



● 12살부터 44살까지 30여 년 동안 은평재활원에서 살았어요. 비록 지금은 자립하여 재활원에서 생활하지는 않지만, 제겐 가장 소중하고 특별한 곳이에요.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이렇게라도 마음을 나눌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해요. 재활원이 어떤 모습으로 지어지게 될지 너무 기대되고요. 아무쪼록 우리 장애인 동생들이 새로 지은 집에서 행복하게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한명수 후원자**



● 어느 날, 참빛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은평재활원에 살던 중수 씨가 30년 동안 살았던 집이 무너졌으며 평평 우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돈이 많아서 지어주면 좋는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주변의 지인들에게 후원을 요청했어요. '거절하면 어떡하지?' 부담도 많았지만 장애인 분들을 떠올리니까 용기가 나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후원했느냐보다 진심 어린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영희 후원자**



● 가족과 봉사활동 하다가 후원을 시작해 21년째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웠던 어린 시절 저를 도와주신 선생님이 계셨고, 그분의 영향을 받아 저도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고자 작게나마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후원한 초등학생 아이가 어느새 대학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르고 든든하게 자라줘서 무척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부디 그 아이도 다른 사람을 돕는 어른으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박종채 후원자**



● 나눔은 작은 관심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을 보면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데,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경쟁'만 강조하지, 정작 우리 아이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들으려 하지 않아요.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고, 시간을 내어 놀다 보면,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서영엔지니어링 이일수 상무**



엔젤스헤이븐이 오늘도 희망을 그리는 건
 얼굴도, 이름도 밝히지 않은 후원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아이들의 교육과 자립을 위해 매월 지인의 이름으로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분.
 계절이 바뀌면 아이들과 장애인들의 옷과 신발을 보내주시는 분.
 장애인들에게 따뜻한 집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주저 없이 고액을 쾌척하신 분.
 그럼에도 늘 적은 금액이라 되레 미안하다는... 아이들이 잘 지내면 그걸로 괜찮다는...
 그 진심 어리고 소중한 마음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후원자 여러분이 계셔서 감사하고 행복한 2016년이었습니다.

Angels' Haven 소속 기관

구분	전화	팩스
은평천사원	02-355-1701	02-357-3923
은평재활원	02-385-2046	02-356-5650
은평기쁨의집	02-388-0050	02-388-6904
출소자쉼터 흰돌회	02-372-5905	02-372-5915
모자가족자활쉼터 흰돌회	02-372-5905	02-372-5915
은평대영학교	02-353-2040	02-389-0623
서부장애인증합복지관	02-351-3982	02-351-3987
서울재활병원	02-6020-3000	02-6020-3099
서부재활체육센터	02-388-6622	02-389-1155
누아하우스	02-351-3599	02-389-3599
은평보호작업장	02-388-2363	02-388-3428
Ah'눔함께지역아동복지센터	070-7113-5617~9	02-357-3923
참빛교회	02-389-8446	
서울시립은평청소년수련관	02-383-9966	02-383-0508
은평구립갈현노인복지관	02-357-2640	02-357-2641
갈현데이케어센터	02-357-2640	02-357-2641
도선어린이집	02-2297-9178	02-2296-9170
녹번어린이집	02-352-7818	02-382-7818
행당푸르지오어린이집	02-2295-1220	02-2295-1221

엔젤스헤이븐 2016 연간보고서

ANGELS' HAVEN 2016 ANNUAL REPORT